



‘완도5일시장’ 특색 있는

시장으로 상권 활성화 도모

2019 전통시장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공모 선정



완도군이 7일 전남도 주관 ‘2019년 전통시장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은 전통 시장·상점가 고유의 개성과 특색에 맞는 맞춤형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시장 경쟁력

을 강화하고 고객·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군과 완도5일시장 상인회는 각종 공모 사업에 대비하여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사업 계획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비 등을 공동으로 준비해 왔다.

완도=김광수 기자

영암군, 폭염대비 읍·면

경로당 시설물 일제 점검

영암군은 금년이 역대 가장 빠른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찌는 듯 한 폭염이 전방위에 따라, 무더위를 피해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관내 읍·면·경로당 452 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에어컨 등 이용자 편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여름철 폭염기간에 독거노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더위를 피해 쉽게 접근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물인 마을 경로당 314개소와 읍·면사무소 11개소 등 총 325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전기, 소방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에어컨 필터 교체·정상 작동여부, 가스gas 속 배관설비 및 타입 콕 설치여부, 시설물 청소·소독 등의 철저한 유지관리, 독거노인·고령자 안부살피기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한다.

또한,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한 15 개소 경로당은 새 제품으로 교체 지원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담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원도심 활성화 주춧돌 기대

담양군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지난 3일 열린 개소식에는 군민과 내·외빈, 각계각층의 단체소속 직원 등이 참석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개소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했다.

행정과 주민사이의 중간지원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담양군 도시디자인과와 협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군민중심, 현장중심의 힘을 넘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실현

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담주리 다미답예술구 내 담빛단루 1층에 위치해 있고, 연면적 58㎡ 규모로 리모델링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군은 올 하반기에 도시재생뉴딜 공모신청을 위해 담양읍 일원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람중심, 현장중심의 힘으로 넘치는 주민주도의 ‘담양형 도시재생 실험’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정과 주민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제7회 무안황토갯벌축제’ 개최

오는 14일부터 3일간 무안생태갯벌랜드 일원서



무리 되는 시기로 축제일정을 변경하여 무안의 우수한 양파를 홍보하고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축제 첫날인 14일에는 9개 읍면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풍요짓밟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개막 축하콘서트가 펼쳐지며, 둘째 날인 15일에는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쇼가,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각설이 품바

공연과 군민노래자랑이 펼쳐져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무안군이 주최하고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축제가 개최되며 특히 양파 수확이 마

지되면서, 둘째 날인 15일에는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쇼가,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각설이 품바 공연과 군민노래자랑이 펼쳐져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하게 된다.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계잡기, 낙지·장어잡기, 바다낚시 체험이 급변에도 갯벌에서 이루어지며 직접 홍토밭에서

양파뽑기·양파망 닦아가기 체험이 이뤄진다.

또한, 양파밭에서 가져온 양파로 양파김치도 닦아보는 체험으로 무안군의 우수한 양파를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땅ழ려 농작물을 수확해 보는 색다른 즐거움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양파 지게지고 달리기, 양파 빨리 까서 먹기 등 양파를 활용한 운동회와 갯벌 릴보개인, 고무신 던지기, 단체줄넘기 등 갯벌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게임과 이벤트를 통해 참여자에게는 양파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관람객도 함께 즐기며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밖에도 도자기 만들기·흙화분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여 무안의 홍토를 직접 만지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안=이기성 기자

진도군, 벼 소식재배 연시회 개최

진도군이 지난 7일 진도군 지산면 양무리 들녘에서 관내 농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밀파육묘 소식재배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시회는 소식재배 기술과 당면영농실천사항 교육, 소식재배 기계이昂 현장 시연,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소식재배 현장 시연은 평당 관행 이앙주수 80주를 37주, 50주로 줄여 이앙하는 2가지 유형을 선보였다.

벼 소식재배는 드물게 심기 재배 방법으로 10a당 모판수를 기준 20개, 30개에서 10개 내외로 줄여 생력화와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또 모판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육묘력과 육묘비용 등을 절감 할 수 있는 생력재배기술로 평씨 퍼종량을 250g에서 300g으로 관행적인 벼 재배보다 2배가량 밀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소식재배 기술은 벼 생력화

기반조성과 육묘비용·노동력 절감, 도복, 문고병 감소 등 농촌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에 효과적이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의 인력부족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소식재배 단지를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조성하겠다”며 “지역의 주요 재배품종의 적정 퍼종량과 재식밀도, 이앙시기 등을 비교 분석해 재배 안전성을 높여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화순 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수상



도곡농협 ‘자연속애 순미’

화순 지역 쌀이 전남도가 개최한 2019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돼 지난 3일 상쾌와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전남도는 앞으로 1년 동안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된 ‘자연속애 순미’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도곡농협은 시장금 100만 원을 홍보·샘플 쌀, 포장재 제작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강진군, 310개 경로당 협업체·체중계 비치

강진군은 경로당 310개소에 협업체와 체중계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매일 협업체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체중관리를 하면서 건강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체중계와 협업체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경로당에 국비 80% 지원 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각 마을별로 이장 등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였고, 마을 주민들에게 사용 방법과 정상수치 등을 알려주었다.

군보건소는 토탈보디 물리치료버스와 구강이동진료버스 운영, 치매 안심마을 운영, 인지강화 교실, 운동·영양교실, 방문간호 등 찾아가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